

# 디지털 시대를 움직이는 아날로그 감성 – MIX 포스트



eQ로 작업중인 MIX 포스트의 나소미 팀장

“디지털 시대에도 변함없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아날로그적 감성”이라는 모토를 가지고 크리에이티브를 발산해 온 포스트 프로덕션 MIX는, CG와 모션그래픽을 선두로 최근에는 DI에 까지 영역을 확장하여 주목 받고 있는 포스트 프로덕션이다.

2005년 확대되는 HD 시장에 발 맞추어 DI 및 색보정 장비를 구축한 MIX의 첫번째 선택은 바로 eQ이다.

## 타이틀에서 드라마까지

드라마 시작 전 눈을 사로잡는 타이틀, 드라마에 걸맞는 CG, 그리고 HD의 표현력을 풍부하게 해주는 색감, 드라마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책임지는 포스트 MIX에서는 CG와 색보정 장비로 eQ를 사용하고 있다.

Ocn이 야심차게 준비한 HD영화 5부작 시리즈 코마는 영화 ‘알포인트’의 공수창 감독의 지휘 아래 획기적으로 진행된 HD 영화이다. 공포영화라는 장르 특성상, 색보정 과정은 필수였고 편집/색보정 및 마스터링 과정까지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eQ가 사용되었다.

## HD 드라마 연개소문

SBS의 간판 사극이 되어버린 ‘연개소문’

HD드라마인 ‘연개소문’은 블록버스터급 전쟁씬이 화제가 되었는데 그 모든 작업은 eQ에서 이루어졌다.

사전 비주얼팀의 슈퍼바이저가 사전 제작 단계에서 참여하여 합성을 위한 다양한 촬영을 한다. 촬영본이 eQ룸에 도착하면, 100명의 군인을 100만 대군으로 만들어주는 작업을 한다. 믹스에는 풍부한 CG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3D팀도 함께 구성이 되어 있는데 3D에서 만들어진 테이타를 네트워크로 받아 합성을 하였다.

이 외에도 호평을 받았던 뮤지컬영화 ‘삼거리 극장’의 몽환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합성 뿐 아니라, 현빈, 성유리 주연의 눈의 여왕 CG, 하지원 주연의 드라마 ‘황진이’의 CG와 색보정 작업을 마쳤다. 최근에는 라희찬 감독 정재영, 손병호 주연의 ‘바르게 살자’의 합성 작업 중이라고 한다. 감독의 의도가 담긴 가장 중요한 씬을 공을 들여 합성했다고 하니, 멋지게 합성된 그 결과물을 극장에서도 확인할 수 있겠다.

이렇게 영화부터 드라마의 타이틀, CG, DI까지 논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는 MIX 포스트와 eQ의 더욱 더 화려해 질 포트폴리오를 즐거운 마음으로 기대해 본다.



<원본>



<합성 후>

배를 여러 대로 합성하고 밤 씬으로 색보정 및 라이트, 불빛 반사 합성 작업



<원본>



<합성 후>

군사들과 무기 등을 합성하여 화면을 가득 채우도록 합성